

기업, 블라인드채용 취지 ‘공감’ 채용 결과·직무적합성도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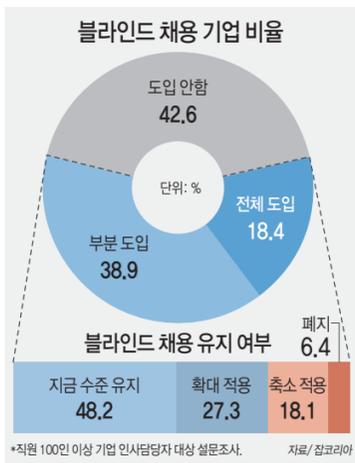
100인 이상 기업 인사담당자 설문조사
단 25%만 “도입 축소·폐지 할 것”

새 정부 출범 이후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투명하게 직원을 선발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면서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도입하지 않은 기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잡코리아가 직원수 100인 이상 기업의 인사담당자 4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블라인드채용을 도입한 기업 2곳 중 1곳에 해당하는 48.2%가 ‘블라인드 채용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확대 적용할 것’이란 기업도 27.3%로 75.5%의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8.1%는 ‘지금보다 축소할 것’이라고 했고, ‘도입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란 응답은 6.4%였다.

블라인드채용은 문제인 정부가 탈스



펙,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핵심 일자리 정책으로 삼아 지난해 7월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지금 블라인드채용의 취지에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54.1%가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했고, 20.0%는 ‘매우 동의한다’고 하는 등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블라인드채용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것

로 나타났다. 반대로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15.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9.9%의 응답을 보였다.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공감하는 비율 만큼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채용 취지에 동의한다’고 답한 기업 중 약 13%가 ‘블라인드채용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블라인드채용을 일부 또는 전체 도입한 기업 중 18%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실제 블라인드채용을 도입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채용과정·절차’, ‘채용 결과’, ‘채용직원의 조기 퇴사율’ 등 세가지 항목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물은 결과, 블라인드채용 도입 후 기업들이 가장 만족을 보이는 항목은 ‘채용결과’로 기업 48.6%가 ‘도입 후 직무적합성, 조직적응력 등 채용결과가 이전보다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전과 크게 다르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26.9%, ‘학벌이나 스펙 등 이전에 비해 채용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24.5%로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상당수 있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금리 ‘2.20%’ 동결

군산 등 9개 위기지역 3년 유예도 가능
오늘부터 10월24일까지 대출 접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내 시중은행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금리는 2.20%로 동결된다. 군산 등 9개 위기 지역에 속한 대출자들은 최대 3년간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5일까지 접수한다.

학자금 대출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학기 대출금리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학과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지난해 기준금리를 0.25%p 인상(1.50~1.75% → 1.75~2.00%)했다. 올해 2분기 현재 시중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3.43%→3.68%)도 전년 2분기 대비 0.25%p 인상됐다.

학자금 대출은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의 경우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목포 등 고용위기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3년간 특별상환유예키로 했다. 이들 위기지역 대출 신청자의 경우 오는 9월 1일~12월 31일까지 특별상환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 성적기준(C학점, 70점)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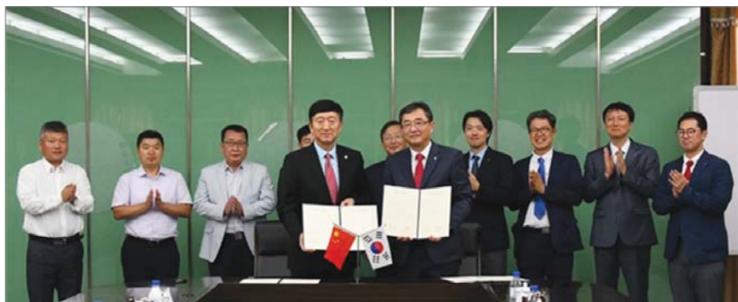
또 기존 학점 취득 목적의 초과 학기자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점 취득이 없어도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의 등록금 마련이 용이하도록 2학기 등록기간을 가능한 한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약 6주가 소요되는 소득구간 산정 기간을 감안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6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고객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광운대 총장, 中 대학과 교류 협력 발 넓힌다

청도이공대·연변대 잇따라 방문
양교간 협력·교류 등 MOU 체결



광운대 유지상 총장(앞줄 오른쪽)이 중국 연변대 김웅 총장(앞줄 왼쪽)과 교환 학생 및 국제 교류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광운대학교

광운대 유지상 총장이 중국 대학들을 잇따라 방문해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9일 광운대에 따르면, 유 총장은 지난 6월 19일부터 4박 5일 간 광운대 국제교류협력과 현지 대학과의 교류협력 체결을 위해 중국 청도이공대와 연변대를 방문했다.

중국 청도이공대는 지난 2006년부터 광운대와 건축학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유 총장은 지난달 19일 청도이공대 담수담 총장과 우덕호 부총장, 유춘당 국제교류처장 등을 만나 ICT 관련 학과 협력 확대와 전자 및 컴퓨터 관련 학과 공동 대학원생 교육 등에 관해 협의했다. 또 이와 관련된 양교 간 ICT 분야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유 총장은 이 대학 졸업전시회 개막식에도 참석해 우수 학생들에게 시상하고 황도캠퍼스도 방문했다.

청도이공대 담수담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약 80년 역사를 가진 광운대는 ICT 분야에 특화된 대학으로 글로벌 인재

를 양성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번 유지상 총장의 방문을 통해 양교간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지난 13년간의 양교 교류협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협력역시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총장 일행은 이어 21일과 22일 연변대를 방문했다. 유 총장은 연변대 김웅 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 교환 학생 및 교류협정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3+2 학부 편입학 과정, 3+1+1 학사사 연계과정, ICT관련 학과 학부 졸업생 대상 광운대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 올해 9월 개교 예정인 연변

대 훈춘캠퍼스를 방문해 100만㎡의 부지에 조성된 강의동과 도서관, 실습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연변대 김웅 총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광운대와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양교가 미래에 더 많은 협력을 해 우의를 돈독히 하고 발전을 도모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교육개혁 강화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운대는 해외 우수 대학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교육부·한국장학재단 입학금 지원 ‘2차’ 추가 접수

내일부터 8월 22일까지 운영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입학금 지원을 위한 2차 추가 신청기간’을 오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입학금 지원 국가장학금은 입학금을 감축한 대학에 입학금을 이미 납부한 모든 입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의 신청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2월12일~3월15일과 1차 추가 신청기간(6월14일~19일)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중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이번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韓·美 대학생 연수 참가자 125명 선발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018년 하반기 ‘한·미 대학생 연수(WEST)’ 참가자 125명을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6개월의 단기 연수생 65명, 12개월의 중기 연수생 60명이다. 지원 자격은 단기의 경우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학은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 또는 최근 1년 이내 졸업생이다. 중기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졸업생(2018년 2월 또는 8월 졸업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10일, 합격자들은 오는 12월 중 미국으로 개별 출국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월드잡 플러스나 국립국제교육원, 웨스트 페이스북을 참고해, 각 일정별 원하는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웨스트 프로그램은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협정에 따라 대학 재학생이나 졸업생에게 최장 18개월간 미국에서 어학연수나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3225명이 파견됐고, 올해 상반기 선발된 195명은 7월 중 미국 출국을 앞두고 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미국 내 인턴 기업에서 성실성과 업무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웨스트 참가자들이 글로벌 취업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기업 10곳 중 2곳만 ‘여름휴가비’ 지급

평균 휴가비 49만5000원 집계

올해 여름휴가 때 기업 10곳 중 2곳만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휴가비는 4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9일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이 기업 499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7월6일까지 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26.2%만 ‘휴가비를 줄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휴가비 지급 비율이 38.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36.6%), 벤처·스타트업(27.6%), 중소기업(24.3%) 순이었다.

기업들이 지급하려는 휴가비 평균은 약 49만5000원이었다. 휴가비 지급구간

별로 지급액이 50만 원대(25%)와 30만 원대(24%)가 가장 많아 전체 기업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100만 원대(11%), 10만 원대(10%) 등의 순이었다.

인크루트가 지난 2005년 대기업 125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2%가 휴가비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고, 휴가비는 평균 33만3000원이었다.

한편 여름휴가를 실시하는 기업은 절반이 약간 넘는 56.4%로 나타났다. /한용수 기자